사 시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조대신문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조선대학교 신문방송사
The Chosun University Press

www.chosun.ac.kr/chnews
2026년 3월 3일 화요일 | 1176호

미리보기
2 보도 – 우리 대학 등록금 인상 가결
3 새내기를 환영해 – 우리 대학 톺아보기
4 학생회 – 단과대학 학생회 소개
5 문화 – 2026 동계 올림픽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지난달 27일, 해오름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입생을 위한 입학식이 진행됐다. 입구에서는 우리 대학 마스코트 '조아'와 함께 홍보대사 푸른 나래가 신입생을 환영했다. 입학식은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됐으며 일찍부터 대강당은 신입생들로 가득 찼고, 자리가 부족해 서 있거나 계단에 앉아 있는 신입생도 적지 않았다. 교내 관계자들은 신입생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며 행사에 임했다.

K-컬처공연·기획학과 학우의 교내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학식이 진행됐으며 식순은 ▲총장 환영사 ▲입학 허가 및 선서 ▲졸업생 편지 ▲총학생회 소개 ▲경품 추천 ▲폐식사로 이뤄졌으며 중간중간 이벤트와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조민혁 총학생회장은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 후 "신입생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춘성 총장은 80주년을 지나 100년을 향한 시작인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한다고 전하며 "대학은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질문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공간, 대학 생활의 경험은 먼 훗날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환영사를 마쳤다.

식 막바지에는 신입생 참여 기반의 이벤트 및 경품 추천이 진행됐으며 당첨자들에게는 노트북, 아이패드, 헤드셋 등의 경품이 제공됐다.

이번 입학식은 교내외 제도, 교내 행사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입생들의 원활한 출발을 도왔다. 화려한 입학식으로 우리 대학의 일원이 된 신입생 4,704명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응원한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동계 토익사관학교 '평균 131점 향상'

우리 대학은 겨울방학을 활용한 집중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글로벌언어교육지원팀은 지난달 10일 '2025학년도 동계 토익사관학교'의 최종 성적을 공개하며 전체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5주간 이어진 동계 집중 어학 과정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토익사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단순한 점수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영어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과정이다. 특히 이번 동계 프로그램은 방학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최대한 활용해 단기 고강도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눠 진행됐으며, 반복적인 모의 TOEIC 시험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1대1 첨삭 지도와 자율 스터디 운영을 병행해 참여자들이 학습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는 수치로 드러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TOEIC 평균 점수가 131점 상승하며 단기 과정임에도 뚜렷한 성과를 냈다. 5주라는 짧은 기간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성장 폭이다.

우리 대학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실제 수요와 학습 결과를 반영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교내 '사이비 주의보' 발령

최근 우리 대학 내 ▲MBTI 검사 ▲향수 시향 ▲웹툰 평가 등 대학생의 관심사를 미끼로 삼는 위장형 사이비 포교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 권유를 넘어 심리 테스트나 설문조사를 가장해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교묘히 수집한다.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집요한 연락으로 인한 피해담과 목격담이 매일 수건씩 게시되고 있다. 직접 확인한 결과 중앙도서관과 제1공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2~3인조의 포교팀이 활발히 활동 중이었다. 하지만 학우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 당국의 대응은 미비했다. 또한 포교 금지 안내문조차 찾아볼 수 없는 등 행정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신변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과 예방 캠페인이 시급하다.

학우들은 과도한 접근과 개인정보 요구 시 단호히 거절하고, 학교 밖 제3의 장소로 유도할 경우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측의 대응 부재 속에서 발생한 피해는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만 남은 시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우리 대학–광주경총 지역인재 양성 위해 산학협력 집중

우리 대학 글로컬 대학추진단(단장 김선중)이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광주경총)와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산학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월 세미나 개최 이후, 지난달 12일 2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대학 간 고용 부조화를 해소하고 지역 정주 취업률을 높여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차 세미나에서는 19개 기업 임원진과 고용 부조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2차 세미나는 ▲현대하이텍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40여 명의 지역 대표 기업 HR 담당자가 참석해 대학과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단장 권구락)이 광주·전남 지역 내 웰에이징 기업들의 전용 멤버십인 'CSU 웰에이징 Glo-Biz Club(글로비즈 클럽)' 멤버십 제도를 공식 소개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대학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중 글로컬대학 추진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산업 변화와 주요 법률 이슈를 공유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세미나를 통한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강소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을 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우리 대학이 손을 잡고 지역인재 유출과 고용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앞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s12345@naver.com

사령

- 여정인(행정복지·4) 편집국장
- 왕태운(법학·2) 수습기자
- 신혜진(국어국문·1) 수습기자

이상 3명을 임명합니다.

〈조대신문사〉

전국적인 등록금 인상 파도에 우리 대학 3% 인상

우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총 4차례의 회의 끝에 학부 등록금 3% 인상을 가결했다. 대학 본부는 대규모 예산 소요에 따른 인상 불가피론을 펼쳤으나, 조민혁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위원들은 2024학년도 인상 당시 약속했던 교육 환경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전원 반대와 설문 참여자 98%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로 인상안은 강행됐다.

이번 결정은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건국대(2.98%), 이화여대(2.95%), 연세대(2.6%)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이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3% 인상은 이들 주요 대학에 평균치를 웃돌며, 법정 인상 상한선인 3.19%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다.

이에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상 계획 중단 및 재검토 ▲재정 현황 투명 공개 ▲학생의 실질적 참여 보장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자구 노력이나 근거 공개 없이 학생 부담만 늘리는 방식은 순서가 잘못됐다"라며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우리 대학 시그널(Cgnal) 총학생회가 지적한 '체감되지 않는 변화'와 '반복되는 인상 논리'는 타 대학 상황과도 마찬가지였다. 재정 위기의 책임을 법인의 자구 노력이나 정부 지원 확충이 아닌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재원 확보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6대 3이라는 압도적 표결 결과는 구조적 모순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됐다. 학생 전원이 반대해도 가결을 막을 수 없는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구조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번 인상이 '명분 없는 강행'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는 수치 뒤에 숨겨진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학은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 의과대학(학장 안영준)은 지난 1월 순천의료원, 지난달에는 무안종합병원과 각각 임상실습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의 교육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며 지역의료 기반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교육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두 의료기관은 향후 선발 및 파견된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과정을 운영해 전문성 향상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진료 현장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고, 실습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기관과 의과대학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학생 대상 의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의과대학-순천의료원 교육협력 체결식 현판 전달

안영준 의과대학장은 "순천의료원, 무안종합병원과의 협약은 지역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교육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계기"라며, "학생들이 실제 진료 환경 속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무안종합병원의 류봉관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의과대학은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인재 양성 및 공공의료 가치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우리 대학-KAI 항공우주분야 AI 교육 위해 협약

우리 대학 김춘성 총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AI 기술을 접목한 항공우주 IPS(통합체계 지원) 분야의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우리 대학은 지난달 11일 '항공우주 분야 AI 융합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주요 관계자들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AI에 기반한 항공우주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신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항공우주 IPS 분야 신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인력 상호 교류 ▲산업 동향 및 R&D 수요 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해 2026년 정부·지자체 연계 R&D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인턴십과 캡스톤 디자인 등 실무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R&D과제란 새로운 기술을 만들거나 기존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말한다.

우리 대학 김춘성 총장은 "항공우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사업 연계 연구와 교육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I CS본부 박경은 전무는 "기업이 보유한 IPS 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대학의 교육·연구와 결합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 1175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대학에서 추진된 AI 기반 큐브위성이 누리호 6차 발사 위성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우리 대학과 KAI의 이번 협약은 우리 대학의 항공우주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s12345@naver.com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 총장 김춘성 / 편집인 겸 주간_ 지병근
편집국장_ 여정인 / 인쇄인_ 박만수
주 소_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 062-230-6162/ FAX_ 062-234-3014 / 행정실_ 062-230-6166

캠퍼스의 숨겨진 TMI 3가지

80년 역사의 우리 대학 캠퍼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입학의 설렘을 안고 들어온 새내기들이 학교에 대한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기획 기사인 "새내기를 환영해"를 통해 톺아본다.

▲우리 대학 '북(Book) 피크닉' 모습

TMI 1.

사라진 '구(舊) 제1공대 교사'의 흔적

현재 제1공대 앞 주차장은 과거 공학 교육의 산실이었던 '구 제1공대 교사'가 있던 자리다. 2005년, 건물 노후화와 경관 개선을 위해 철거가 결정됐다. 당시 우리 대학 토목공학과는 광주, 전남 최초로 '폭파 공법'을 도입했는데, 폭파 공법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을 차례대로 파괴해, 건물이 수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고도의 정밀 기술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폭파 작업에 든 폭약은 다이너마이트 100kg으로 단 10여 초 만에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세월이 흘러 건물은 자취를 감췄지만, 현장 한편의 안내판은 그날의 굉음과 뜨거웠던 역사의 현장임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다. 무심코 지나던 이곳이 과거 뜨거운 공대생들의 열기가 넘치는 터전이었음을 떠올려 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른다.

TMI 2.

1·8 극장, 우리가 몰랐던 비밀

학생들의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1·8 극장'의 이름에는 우리 대학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다. 1980년대, 독재적 학원 운영에 맞서 교수와 학생, 지역민들은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198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원 민주화 농성은 100일 넘게 이어지며 대학 본관을 지켜냈다. 1988년 1월 8일,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점거 농성은 113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 항쟁은 결국 관선 이사 파견과 학원 민주화라는 승리를 끌어냈다. 대학은 이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천극장을 '1.8 극장'으로 명명했다. 1.8 극장은 학생들의 단순한 노천극장을 넘어 우리 대학의 뜨거운 민주 의지와 연대 정신 등 희로애락을 모두 담은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TMI 3.

80년 역사와 함께한 '본관의 비밀'

무등산 아래 백색의 본관은 우리 대학의 상징이다. 1954년 완공 당시 5개였던 박공지붕 건물은 대학의 성장과 함께 증축을 거듭하며 현재 19개의 박공지붕 건물을 갖추게 됐다. 본관의 전체 길이는 375m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이는 63빌딩 높이(249m)의 1.5배에 달한다. 흥미로운 점은 본관의 지번 주소 역시 '서석동 375번지'라는 사실이다. 아름다운 외관 덕분에 영화 〈서울의 봄〉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등의 촬영지로도 사랑받았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주둔지로 활용돼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은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대학 본관은 우리가 물려받은 '민립대학'의 자부심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긴 복도를 통해 묵묵히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80년 세월이 쌓인 교정은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무심코 지나쳤던 교정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대학 축제

축제 시즌이 되면, 이 학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학우를 맞이한다는 것. 강의실 바깥에서 진짜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우리 대학 'GRACIA' 축제 모습

2024 대동제 GRACIA

2024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대학 대운동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총학생회가 주관한 2024 대동제의 이름은 'GRACIA'. 스페인어로 은혜이자 재미있음을 뜻하는 이름처럼, 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 그대로였다. 기존 '빛고을 보은제'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됐고, 재학생은 물론 광주광역시 시민 전체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다.

3일간의 공연 라인업은 당시 대학 축제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했다. 첫날 무대에 오른 뉴진스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고 SNS가 달아올랐고, 재학생 학생증을 구하려는 글이 중고 거래 플랫폼까지 퍼져나갈 정도였다. 이어 볼빨간사춘기, 크래비티, QWER가 개막의 열기를 더했고, 둘째 날엔 ▲다이나믹 듀오 ▲하이키 ▲조유리 ▲최예나가 무대를 장악했다. 마지막 날의 대미는 싸이였다. 에너지가 대운동장 하늘 위로 폭발했다.

3일 동안 대운동장을 찾은 인파는 12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라, 광주 전체가 들썩인 봄의 이벤트였다. 재학생들이 기억하는 2024년의 5월은 아마도 가장 뜨겁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더 크게
2025 대동제 GRACIA

2024년의 뜨거운 기억을 뒤로하고, 2025년에도 GRACIA는 돌아왔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운동장에서 펼쳐진 2025 대동제는 전년의 흥행에 응답하듯 더욱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채워졌다.

총학생회는 해마다 축제를 단순한 공연 이상의 공간으로 만들어 왔다. ▲주막 ▲플리마켓 ▲학과 부스 ▲동아리 공연까지 캠퍼스 곳곳이 활기로 넘쳤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있었다.

교정이 꽃밭이 되는 시간, 장미축제

대동제가 밤을 달군다면, 장미축제는 낮을 물들인다.

매년 5월, 장미가 절정에 달할 무렵 장미 주간이 열린다. 2025년에는 'Rise with Rose(조선대, 장미와 함께 떠오른다)'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우리 대학이 꾸린 다양한 부스가 캠퍼스 전체를 하나의 축제장으로 만들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빠짐없이 문이 열리고, 축제 기간 이후에도 한동안 야간 개방이 이어진다.

장미원은 재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매년 수만 명의 광주 시민이 이곳을 찾아오고,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소통의 창구로 기능한다. 무료로 개방되는 이 공간은 우리 대학과 지역이 함께 100년을 걸어온 방식을 꽃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2026년 장미축제 역시 5월의 우리 대학을 빛낼 예정이다. 매년 풍성해지는 프로그램과 함께, 올봄에도 장미원은 새내기들의 첫 봄을 기억할 배경이 돼줄 것이다. 입학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꽃향기 가득한 장미원 한 바퀴는 대학 생활의 통과의례처럼 이어지고 있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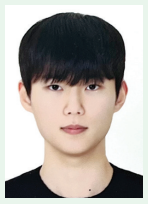
2026학년도 단과대학 학생회 소개

| 글로벌 인문대

• 학생회장 : 권석영(유럽언어문화학부·3)
• 부학생회장 : 강연비(영어영문학과·3)

2026학년도 조선대학교 제7대 글로벌인문대학 '시너지' 학생회입니다. "2000 학우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세계로 확장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학우 여러분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밑바탕이 되는 대학 생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 치과대학



• 학생회장 : 최혁우(치의학과·2)
• 부학생회장 : 최정섭(치의학과·2)

치과대학 41대 학생회 '이음'입니다.
점과 점을 이어 하나의 선이 되듯,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이어 모두의 뜻을 모으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작은 의견도 소중히 듣고, 그 목소리가 학교와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음 학생회는 신입생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며 그 연결의 중심에서, 서로를 잇고 마음을 잇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 사범 대학

• 학생회장 : 최낙원(국어교육과·4)
• 부학생회장 : 추동신(음악교육과·3)

사범대학 제39대 학생회 '청명'은 "사범대학 학우들과 만들어 가는 청명한 날"이라는 기치 아래, 학우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학생회로 출범했습니다. 날이 좋아야 봄의 시작이 수월하듯이, 저희는 학우분들과 함께 더 투명하고 밝은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사범대학 안에서, 저희는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하겠습니다.

| 미래사회융합대학

• 학생회장 : 김재규(스마트비즈니스학과·4)
• 부학생회장 : 김영혁(스마트비즈니스학과·4)

2026학년도 조선대학교 제9대 미래사회융합대학 '퍼클' 학생회입니다.
학우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가장 먼저(First) 살피고, 명쾌하게 해결(Clear)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직종의 학우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도전이 눈부신 결실을 맺는 2026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체육대학

• 학생회장 : 김인식(체육학과·4)
• 부학생회장 : 신성현(체육학과·4)

"체육대학 1000학우의 바람을 이루어주고 체육대학의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바람 학생회"
안녕하세요 제39대 체육대학 '바람' 학생회입니다. '바람'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우리 체육대학 학생회의 다짐입니다.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항상 곁에 서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순간까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 약학대학

• 학생회장 : 이유진(약학과·5)
• 부학생회장 : 김이슬(약학과·4)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제39대 학생회 '결'입니다. '결'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매듭이자, 노력 끝에 맺어지는 소중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학우 여러분과 굳게 결속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의 학업과 학교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 법사회대학

• 학생회장 : 조은세(법학과·4)
• 부학생회장 : 이효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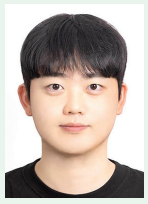
"법사회대학 1500학우의 꿈을 심다", 제39대 법사회대학 학생회 'SEE:D'입니다. 저희 'SEE:D' 학생회는 법사회대학 1,500명 학우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로서, 학우분들의 꿈을 바라보고 'SEE the Dream', 그 꿈을 심어 'SEED', 함께 나아가는'CEED' 2026학년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경상대학

• 학생회장 : 금도원(무역학과·4)
• 부학생회장 : 변남규(경제학과·4)

경상대학 3000 학우, 그대들과 늘 함께. 제39대 경상대학 '그늘' 학생회 학생회장 금도원, 부학생회장 변남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 학생회는 학생분들의 의견을 목소리 내고, 함께 나아가며, 학우 여러분께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다가가겠습니다.

| 의과 대학



• 학생회장 : 정최다빈
• 부학생회장 : 기호원

의과대학 제39대 학생회 '나비(NAVI)'입니다. 저희 나비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잡이, NAVI:GATOR가 되고자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비효과처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학생과 학교를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 IT융합대학

• 학생회장 : 이연우(전자공학과·4)
• 부학생회장 : 김석현 (컴퓨터공학과·4)

저희는 학우와 함께(WITH) 소통하고 실천한다' 는 기치 아래,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학의 변화가 되는 순간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가득한 한 해, 학우 여러분과 발맞춰 걸으며 소중한 순간들을 채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 공과대학

• 학생회장 : 황재청(전기공학과·4)
• 부학생회장 : 한승훈(기계공학과·4)

5000 학우와 내일을 향하다, 제39대 공과대학 'VECTOR' 학생회 입니다. 공과대학 학생회는 학우분들의 의견과 바람을 모아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방향이자, 공과대학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 길의 중심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미술대학은 비대위 운영입니다

새로움으로 물들었던 올림픽

새로운 역사의 시작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이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됐다. 총 93개국이 16종목에 참여했으며 그 중 한국은 13위로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이번 올림픽은 두 개의 도시가 공식적으로 공동 개최하는 첫 사례이다. 올림픽 공동 개최는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이자 만들어갈 올림픽 역사의 시작이다.

재활용 금속으로 만든 메달, 성화봉

밀라노-코르티나 2026의 또 다른 얼굴은 지속가능성이었다. 엠블럼 '로고 푸투라'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됐는데, 이 디자인에는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대회 모토가 시각적으로 녹아 있다. 숫자 26의 형태 안에 밀라노(M)와 코르티나(C)가 서로 엮여 있는 구조다.

이탈리아 국립 조폐국이 제작한 메달은 자체 생산 과정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성화봉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성화봉은 재활용 알루미늄과 황동 합금으로 제작됐으며, 최대 10회까지 재사용 및 보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손잡이에는 재생할 수 있는 원료에서 추출한 60% 바이오 나프타가 함유된 초경량 폴리머가 사용됐다. 성화 봉송에 필요한 성화봉 수량 자체를 크게 줄인 셈이다.

환경 단체의 비판도 있었다. 코르티나의 낙엽송 숲 2만㎡를 벌채해 올림픽 트랙을 재건하는 계획이 논란이 됐고, 공사 지연과 입찰 담합 스캔이 불거지면서 대회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개막 직전까지 이어진 국제 훈련 기간을 통해 선수들은 새 트랙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다. 루지 선수들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들은 11월 초부터 트랙을 점검했다.

동계 올림픽의 새로운 종목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스켈레톤이 정식 종목으로 복귀한 이후 무려 24년 만에, 동계 올림픽에 완전히 새로운 종목이 등장했다. 바로 스키 마운티니어링, 일명 '스키모'다.

보르미오의 스텔비오 스키 센터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진 이 종목은, 스키를 신은 채로 설산을 오르고, 정상에 도착하면 스키 바닥의 미끄럼 방지용 '스킨'을 단 몇 초 만에 떼어낸 뒤, 다시 슬로프를 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르막과 내리막, 지구력과 순발력, 심폐 능력과 장비 조작 기술이 모두 요구되는 복합 종목이었다.

남녀 스프린트와 혼성 계주 총 3개의 금메달이 걸렸고, 알프스 지역에 깊은 뿌리를 둔 이 종목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선수들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스키마운티니어링연맹(ISMF)은 2007년 설립된 이후 56개 회원 협회를 거느리며 꾸준히 저변을 넓혀왔고, 2020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첫선을 보인 뒤 6년 만에 정식 무대로 올라섰다.

장비 탈착 과정에서 단 1초의 실수도 순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중들은 선수들이 전환 구역에서 스킨을 정리하는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숨죽여 지켜봤다. 스킨을 올바르게 보관하지 못하면 30초 페널티가 부과되고, 제대로 수납하지 않으면 3초 페널티를 받는다. 속도와 기술, 집중력의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완주가 가능한 종목이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각각 메달을 획득한 김길리와 최민정(출처: 연합뉴스)

보편적 시청권 침해

이번 동계 올림픽은 JTBC가 독점 중계권을 쥐고 시작했다. 지상파 3사와의 협상 결렬로 인해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얻었지만, 독점이 올림픽 기간 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시청률 조사 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한국 기준 7일에 방송된 개막식의 시청률은 1.8%로, 응원이 열렬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지상파 합계 44.6%)에 비해 한참 저조했다. 시차에 따른 이유도 존재하지만, 개막 여부를 몰랐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러 채널에서 다채롭게 볼 수 있었던 지난 올림픽들에 비해 제25회 동계올림픽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홀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지상파 3사가 아닌 방송사에서 올림픽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었다. 올림픽 개최의 열기가 올라오기 전에 독점 중계권에 대한 논란이 화두에 섰다. JTBC의 독점 중계로 인해 채널을 돌려가며 원하던 종목을 보는 재미가 사라졌고,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가 거론됐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성화봉 (출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나 그 밖의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파 3사는 한 방송사의 독점 중계가 이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올림픽과 함께 시작된 논란

지난달 13일, JTBC는 한국 최초 설상 '금메달' 획득 소식을 자막으로만 띄워 논란을 빚었다. 최가온 선수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3차 시기 90.25점을 받으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 금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자 한국 설상 종목에서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었다. JTBC는 금메달을 확정 지은 3차 시기에 대한민국 강세 종목이자 국민의 관심도가 더 높은 쇼트트랙 경기를 송출하며 의미 깊은 금메달의 순간을 자막으로만 처리했다. 본 채널이 아닌 계열사인 JTBC 스포츠 채널에서만 송출해 일부 국민들은 독점 중계권사가 주요 경기를 소홀히 해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방송사가 독점하게 되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JTBC는 금메달 자막 처리 논란에 이어서 또 다른 이슈를 낳았다. 같은 달 15일,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경기도청)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해 준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었다. 경기의 절반 정도가 지난 후 광고가 송출될 타이밍에 갑작스레 일장기가 10초 이상 화면에 박히며 시청자들을 당황케 했다. 한국이 앞서고 있는 일본과의 경기에서 일장기가 노출되자 시청자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경기의 독점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에서 실수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논란이 화두에 오르자, 국민들은 올림픽을 시청하기 시작했다. 인기 종목 중 하나인 쇼트트랙에서는 순간 시청률 13.8%를 달성하며 국민의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난 메달

관심에 보답하듯 선수들은 경기에서 성과를 보여냈다. 22일 한국시간 10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기록했다. 금메달에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 ▲쇼트트랙 여자 3,000m 여자 대표팀, 은메달에는 ▲쇼트트랙 남자 1,500m 황대헌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 등, 동메달에는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임종언 등이 빛나는 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는 초반 충돌로 인해 넘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첫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갖은 논란이 발생했던 이번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 역량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눈과 얼음 위에서 다시 증명된 것들

JTBC 독점 중계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여러 논란을 낳았지만, 눈과 얼음 위에서 벌어진 경쟁만큼은 순수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 두 도시는 200km의 거리를 두고 하나의 올림픽을 완성했다. 1956년에 타올랐던 성화가 70년 만에 다시 켜졌고, 새로운 종목이 무대 위에 올랐으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중동의 선수들이 동계 스포츠의 새 역사를 썼다. 올림픽은 여전히 진화 중이었다.

다음 동계 올림픽은 2030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열린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교수칼럼

광주의 보석 〈광주극장〉

김 희 정 교수
(문예창작학과 교수)

올해 조선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익숙한 봄에 낯선 장소에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된다. 모든 것이 낯설 테지만 그렇기에 새로울 것이다.

나는 신입생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생생하게 신학기를 맞기를 바라본다.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알아가게 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이 지면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광주에는 보석 같은 장소들이 많은데 아시아문화전당이나 광주시립미술관처럼 전시나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다. 올해 9월에는 광주비엔날레도 시작하니 볼거리가 더 많을 예정이다.

역사적인 장소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5·18 민주 광장과 금남로, 전일빌딩 등, 역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보면 좋겠다. 특히 매년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는 꼭 참여해 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광주에는 작은 책방들이 많다. 책방마다 대형 서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책방 주인의 취향과 색깔을 가지고 있어 들러 볼 만하다. '광주' 하면 맛집 또한 빠질 수 없으니 유명 맛집에서 인증을 하거나 새로운 맛집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광주극장〉이다. 충장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 광주극장은 올해 91주년을 맞는다. 광주극장의 유명도는 이제 세계적인데 얼마 전 프랑스의 전통 있는 영화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éma)에서도 취재를 와서 잡지에 실을 정도이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광주극장이 나온 이후로는, 국내외 관객들에게도 광주에 오면 들르는 유명 관광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이 광주극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앉았는데 사진만 찍고 나가는 외국 관광객을 만나더라도 놀라질 마시길.

이런 광주극장이 의외로 광주에 사는 시민 모두에게 유명하지는 않다. 광주극장을 가려고 잡아 탄 택시에서 기사님은 의례 이런 질문을 한다. "그 극장이 아직도 있어요?" 광주극장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가끔 한마디씩 한다고 한다. "여기에 이런 게 있네?"

일상적인 공간의 낯선 장소. 그게 광주극장이다. 그런데 '영화'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일상 속에 있는 낯선 것.

광주극장의 간판은 매년 지원자를 모집해 시민들이 직접 간판을 그린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광주극장 개관영화제 때 시민들이 그린 '그림 간판'을 거는 것으로 축제처럼 개막식을 시작한다.

또한 광주극장 옆에는 '소년의 서'라는 작은 책방과 비건 베이커리 '빵과 장미'라는 놓치기 아까운 장소들도 있다. 영화 시작 전에 이 장소들을 들러보는 것도 색다른 맛을 주리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광주극장, 빵과 장미, 소년의 서가 함께 '영화의 집' 마당에서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공예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는 장터인 '지구농장터'가 열린다고 하니 그때 시간 맞춰 구경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듯 광주에는 보석 같은 장소가 많고, 그 장소들은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여러분이 움직이는 만큼 보일 것이고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 이번 봄, 여러분의 새로운 챕터를 광주극장에서 낯선 영화들을 보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취임의 변

설렘과 두려움

여 정 인
(신임 편집국장)

작년 이맘때쯤 수습기자에 지원했다. 교내 이슈를 다루고 언론의 역할을 하는 학보사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편집국장을 목표로 지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책임감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고 편집국장이라는 직책을 달아 취임의 변을 작성하고 있다.

그리 오래 하지 않은, 부족한 활동을 양분 삼아 편집국장을 맡게 되니 설레지만 민망하기도 하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직도 수습기자 같은데 '감히' 편집국장의 타이틀을 달아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걱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물밀듯 들어오는 일들은 내게 자격을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실감 나지 않던 이 자리의 무게가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선배들이 지나온 길과 그 역량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해내야만 한다.

꽤 많은 글을 썼지만 아직도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얀 화면을 바라보며 멍때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어렵게 시작한 글은 퇴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읽고 또 읽어보며 글을 다듬는다. 어떻게 하면 더 매끄러울지,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릴지와 같은 고뇌를 거친다.

모든 것을 마치고 교내 곳곳 배치된 신문을 바라보면 그 뿌듯함은 말로 이룰 수 없다. 내가 쓴 글이 곳곳에 놓여있는 것. 학보사의 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과 성취였다. 그런데 이제는 글 작성을 넘어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니 그 성취감은 배로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한 해 동안 고뇌를 함께 해왔던 기자분들을 떠나보내려니 아쉬운 마음이 든다. 늘 응원해 주시고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전 편집국장님과 동료 기자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감사했다는 말을 전한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올 수습기자분들을 환영하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많이 배웠고 이제는 더 많이 성장할 일만 남았다.

내가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조대신문사가 더 진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26년의 조대신문사는 학우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그 존재를 알리고 대학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학우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조대신문사가 꾸려질 것이다.

개강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만큼 새로운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2026년의 조대신문사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남기며 취임의 변을 마친다.

퇴임의 변

후련히 떠나겠다는 다짐

박 지 인
(전임 편집국장)

두려운 시작일수록 마무리는 후련한 법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뒤로 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지금이, 2년의 학보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배들에게 지면을 내주는 지금이 그 마무리의 순간이다. 문득 '후련하다'라는 말을 써도 될까 싶어 찾아보니 '좋지 아니하던 속이 풀리거나 내려서 시원하다'라고 한다.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조대신문 기자가 된 이후로는 단 한 순간도 속이 좋았던 적이 없다.

[수습일기]부터 [퇴임의 변]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처음 학보사에 들어와 첫 기획 회의를 한 날에는 대체 무엇을 발제해야 할지 감도 못 잡았다. 결국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망했다"라는 거였다. 학보사가 왜 하고 싶었을까, 신문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려고 했을까, 내가 감히 기사를 써도 될까. 지면 계획표에는 이미 이름 석 자가 박혀 나와 있고, 선배와 동기들은 각자 취재하기 시작한 상황에 도망칠 수 없었다. 처음 기사를 쓰는 내내 죽어도 못 하겠다며 이번 발행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써냈다. 그렇게 발행한 1158호에 수습기자라는 직책이 달린 기사가 실렸고, 신문을 손에 쥐자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사그라들고 괜스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였다. 지금 다시 보면 당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가늠도 되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선배 기자들의 퇴고와 데스크를 거쳐 그나마 읽을만한 정도가 됐다는 거다. 그렇게 선배들의 품 안에서 수습기자 시절을 지나 후배들이 생기며 정기자가 됐다. 정신없이 기사를 쓰고 나니 어느새 데스크까지 올라왔다.

대학 생활의 반절을 조대신문과 함께 하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야 돌이켜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을 실감한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음을 이젠 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영원히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걸 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책임감을 덜고 또 다른 책임감을 갖기 위해 떠난다.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미디어 시대에서 학보사의 존재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앞으로 더 많은 지면을 채워나갈 후배 기자들을 믿고, 조대신문에 잠시라도 머무는 학우들의 시선을 믿는다.

사 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

유달리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방학이 지나고 이제 다시 신학기가 시작되었다. 대학문을 처음 열고 들어온 신입생들은 물론이고 재학생들도 이제 처음 마주하는 학우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일부의 학생들은 지난 학기에도 만난 적이 있고, 이미 다른 수업을 통해 익숙해진 교수님의 강의도 수강하겠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탓에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모든 시작이 그렇듯이 신학기를 맞이하면 마치 '미지의 세계'를 만난 것처럼 과연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하는 기대와 설렘을 떨칠 수 없다. 그리고, 그 설렘 뒤에는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으며 때론 쓰러질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학기(semester)'라는 하나의 '주기'를 설정하고, 그 시작에 의미를 부여한다. '새해'를 맞이할 때처럼 우리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작을 알린다. 이는 반드시 그 주기와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늘 변화하기에 그 변화에 대응하려는 본능적 혹은 합리적 반응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우리가 주기에 따른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졌거나,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새학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세상에 대한 재해석과 그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좌표를 설정하고 '경로'와 '속도'를 계산하며 그 길로 나아간다. '혁명'이나 '혁신'과 같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게임 시간이나 음주량·흡연량 '감축'처럼 소소한 생활 습관을 바꾸겠다고 다짐하고, 취업이나 학업성적의 '폭풍 상승'과 같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목적과 전략을 설정하기도 한다. 물론 그 '길'은 대부분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어떠한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과거와 현저히 다른 길을 원한다면 그동안 습관처럼 지니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걸어왔던 흔적을 없애거나, 돌아갈 '퇴로'를 불태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고통과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를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

마침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이 정월 대보름이다. 정월 대보름 풍습 가운데 달집 태우기가 있다. 이는 보름달이 떠오르면 생솔가지 등을 모은 무더기에 불을 놓아 태우는 것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들이 과거의 사악을 불태워 정화하는 상징적 달맞이 의식이다. 달집 태우기에 비유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는 다양하다. 12.3 내란 이후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구하기 위해 내란 세력을 법정에 세워 엄중히 처벌하는 것 또한 법적 형식을 갖춘 일종의 '달집 태우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제대가 법정으로, 제사장이 법관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태울 것인가? 악습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는 없다. 갖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시간과 자산을 내어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봉사하거나 가난한 이에게 자선을 베풀 수는 없다. 게임 할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독서할 시간을 늘릴 수는 없다. 물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듯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 학문 공동체인 대학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버릴 것인가? 그 답을 얻는 때 우리는 비로소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당신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

서 석 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마무리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았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문·방송 기자직 채용 규모는 매년 줄고 있다.

학보사에서 3년을 보냈다. 교내 사안부터 지역 현안까지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배운 건 글쓰기만이 아니었다. 취재원을 설득해 인터뷰하는 법, 공문서를 읽고 숫자에서 맥락을 짚어내는 법, 현장을 반복해서 밟으면서 저널리즘이 단순히 글을 쓰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기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다는 것도 직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언론은 해마다 하위권을 기록한다. 어뷰징 기사, 출처 불명의 단독 보도, 광고주 눈치를 보는 편집. 이런 문제들을 모른 척하고 기자를 꿈꾸는 건 순진한 태도다. 구조적 문제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단순하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제도 밖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지면에 올리는 것.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취재기자의 기본 역할이다. 학보사에서 소규모로나마 그 일을 해봤다. 기사가 나간 후 취재원에게 연락이 왔을 때, "이런 내용이 기사가 될 수 있는지 몰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판단이 섰다.

현실적으로 불안하다. 필기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논술을 써야 하고, 면접도 있다. 언제 공채가 열릴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어디선가 타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언젠가 내 이름이 달린 기사가 실릴 것이다. 그 기사가 한 사람의 상황을 바꾸거나,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거나, 묻혀 있던 문제를 꺼내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 가능성 하나로 마지막 학기를 버티고 있다.

낱/말/퍼/즐

사	파	익	장	관
제	학	대	법	문
공	신	사	습	모
이	수	폭	미	교
토	비	조	축	집

1.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로, 스스로 영어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과정
2.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신도들을 착취하는 집단의 명칭
3. 매년 5월 장미원에서 열리는 ○○○○
4.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을 차례대로 파괴해, 건물이 수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고도의 정밀 기술

※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지운 뒤 마지막에 남는 단어들을 조합해 문장을 만든 뒤 학과, 학번, 학년, 이름, 핸드폰번호와 함께 **3월 31일**까지 chnews21@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발표는 다음 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개별통보를 통해 스타벅스 교환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6 신문방송사 수습모집

2026

조대신문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모집기간

2026. 2. 16.(월) ~ 3. 13.(금)

조대신문에서 제73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학내•외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기자들과 회의를 거쳐 신문을 발행합니다.
대학의 대표 학보사로 학내 소식에 가장 가까운 이곳,
조대신문이 수습기자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우리 대학 1~4학년 재학생(휴학생, 졸업생 제외)
- **분야 :** 대학, 사회, 문화
- **활동 :** 매달 정기적인 신문 발행 (방학기간 제외)
- **혜택 :** 매달 활동비 및 원고료 지급
- **신청방법 :** 메일을 통해 신청서 제출 (제목: '[조대신문] 모집 공고 신청서' / 내용: 이름, 학번, 학과 / 첨부파일: 신청서)
- **선발과정 :**
  1. 신청서 서류 평가
  2. 면접평가(날짜 개별 안내) 후 합격 통보 및 활동 안내
- **지원서 접수 및 문의 :** 010-9649-2342 chnews21@daum.net (* 해당 메일로 신청서 첨부) @chnews21(인스타그램)

THE CHOSUN WORLD

조선월드
www.chosun.ac.kr/chosunworld

모집기간

2026. 2. 16.(월) ~ 3. 6.(금)

조선월드사에서 함께 활동하여
누구보다 빛날 당신을 기다립니다.
조선대학교 유일무이 영자신문사 조선월드에서
성실하고 열정 가득한
40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조선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1년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분야 :** 대학부, 문화부, 국제사회부
- **활동 :** 연 4회 영어 기사 및 카드뉴스 발행 (3, 5, 9, 11월)
- **지원서 및 접수 문의 :** hhomini3@gmail.com

* 자세한 사항은 조선월드사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바랍니다.

CUEB

교육방송국
www.chosun.ac.kr/cueb

모집기간

2026.2.2.(월)~2026.3.13.(금)

조선대학교 언론기관 교육방송국에서
열정 가득한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조선대학교에서 교내 방송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뽐내고 싶은
53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조선대학교 신입생 26학번 및 재학생 25학번, 꾸준한 활동이 가능한 자
- **분야 :** 제작부, 기술부, 보도부, 아나운서부
- **활동 :** 장미주간 부스 운영, 둘셋가요제 행사 기획 및 진행, 컨텐츠 촬영, 총학생회 축제 연예인 직캠 촬영
- **지원서 접수 및 문의 :** 2306180@naver.com @cueb_chosun (인스타그램)

*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참고바랍니다.

조선대학교 신문방송사